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하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요즘 신학자들 사이에서 ‘고난신학’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에 너무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신학에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욥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정직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욥에게서 모든 것을 일순간에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가 고난당한 것이 욥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욥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고난에 대해 ‘왜’에서 시작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고난 중에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고 묻기 시작하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에서 중요한 것은 ‘왜(why)’가 아니고 ‘무엇(what)’입니다. 무엇을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 자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초반부에는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라고 질문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뵈옵니다.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 바뀐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일대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가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곳에 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말씀의 효능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시편 19편은 시편 119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에 관해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피조 세계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을, 뒷부분에서는 말씀 속에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를 보고도, 하늘과 작은 들풀을 보고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포를 알아듣기에는 너무도 어두운 상황이라는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죄악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자연들이 선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이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신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영혼의 소성과 지혜

7-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의 ‘율법’은 토라입니다. 보통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다섯 권의 책이 세상과 인간의 삶의 원리에 관한 가장 기초를 담고 있는 책이어서 이것을 ‘토라(기본, 기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라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토라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소성시키며’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좋은 상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한 번도 예수를 만나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사람이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은 좋았던 지점으로, 가장 완전한 지점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게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요즘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을 다녀보고, 좋은 것을 경험해보고, 상담을 받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시 19:1-14)

씀 병원인 토라로 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이며, 우리 삶의 기본이며, 모든 세상의 원리가 담겨있는 토라로 가야 내 마음이 어느 곳에서 고장났고, 내 인생이 어느 곳에서 무너졌는지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도는 누구이고 가정은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는 누구이고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너졌는지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발견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외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와 증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서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역사하심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 자연 가운데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완전한 말씀은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인생의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깨끗한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 밝아져

설교를 잘 듣기보다
성경을 잘 읽는 성도 되어야 ”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경우에 복을 주시고, 어느 때에 징벌하시고, 어떤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자인가에 관하여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미워하시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본 자는 우둔한 삶, 미련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과 밝은 눈

세 번째로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어떠한 일에 관해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정직하다’는 ‘올바르다’는 뜻

을 가진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자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안 된 것도 없는데 무언가 허전하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하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았는지,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을 따라오셨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난 자, 하나님의 훈계를 떠난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슬픔이 그의 인생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입니다. ‘여호와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나오는 말씀은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직 걸어보지 않은 시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순결하다고 하였습니다. 순결한 것은 불순한 것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하면 됩니다. 거기에 핑곗거리를 대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면 복이 옵니다. 그 깨끗한 명령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보게 합니다.

맺음말

자연에서 시작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을 통해 내 속의 깊은 곳까지 다름받고 지도받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는 성도가 되기보다 성경을 잘 읽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예배에 와서 듣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설교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각자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붙들림을 받고, 영혼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다 말씀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혹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겨낼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꿀과 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사랑부캠프 후기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5~6일, 사랑부는 1박2일 동안 영종도로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사랑부에서 외부 캠프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저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캠프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자는 주 제였어요. 사랑부 지체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과정을 통해 사랑부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택하셨듯 하나님은 먼저 사랑부 강도사님을 택 하셔서 1박2일 캠프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고, 사랑부 자원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강도사님과 교사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준비과정으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가로막혔 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2박이 아닌 1박을 장애인 단체에게 빌려줄 장소는 구해지지 않았고, 부모님들은 염려가 되어 자녀 보내기를 저어하셨고, 교사들은 휴가 내는 것을 부 담스러워했고, 봉사자는 모이지 않았습니 다. 기도하면 평 안을 주시는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저는 눈만 뜨 면 불안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셨습니다. 다른 교회 사랑부를 통해 예비하신 장소를 소개받게 하시고, 부모님 들이 평안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교 사들의 마음을 자원하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봉사자 들까지 풍성히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랑부 지체들의 건강을 허락하셨고, 직장을 다니는 지체들까지 픽업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대부분의 지체와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의 꿈 같은 소망이 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캠프 준비과정 가운데 이미 요셉 이야기를 풀어 놓고 계셨습니다.



캠프의 두 번째 목표는 함께 먹고 자며 공동체의 친밀 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체들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면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즐거우리라 기대했습 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의 밤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수면장애로 잠 못 이루고, 병으로 몸 이 아파 잠에서 깨고, 불안장애로 숙소를 배회하는 지체 들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짐작하고 있었던 장애인 지체와 그 가족의 어려움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 못 드는 지체와는 함께 밤을 새우고, 아파 하는 지체와는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들을 함께 붙드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캠프가 끝난 지금,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자체들에 대해 조금



김혜정 사랑부교사
amykim817@gmail.com

더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부 지체들은 캠프에 다녀온 후 연극이 재미있었고, 찬양이 좋았고, 밥이 맛있었고, 봉사자 선생님들과 어울려 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 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승리하겠다는 복잡한 고백은 잘 하 지 못해도 그 좋았다는 단순한 고백 위로, 이전보다 확신 에 찬 감사의 눈빛과 행복한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며 하 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부 지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캠프를 또 가 고 싶다고 합니다. (내년 캠프를 위해 저희에게 부족한 것 은 교사들 체력뿐인 것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 던 사랑부 캠프에 감사와 은혜만 남기신 하나님을 찬양하 며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을 올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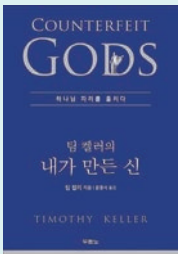
새가족		
▶▶ 장년		▶▶ 청년
김삼(76)	손대호(78)	정건우(03)
문미영(82)	이지은(80)	장현종(04)
임재하(51)	한송은(66)	양세현(99)
황명순(61)	정광균(69)	류승준(91)
김정운(82)	손규식(59)	박성군(05)
차지연(78)	권경란(61)	

추천도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저 · 윤종석 번역/두란노서원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 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 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 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우리 가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하 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 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깨달음을 전 한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저자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썼다. 즉, 참 하나 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라는 것이 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친숙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그들 내 면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브라함과 평생 소원, 야곱과 사랑, 삭개오와 돈, 나아만과 성취(성공), 느부갓네 살과 권력,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문화와 종교의 가짜 신을 살펴본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 서 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교보문고)

교회 소식

해외아웃리치

태국: 7월 31일(수)~8월 6일(화)
라오스: 7월 31일(수)~8월 7일(수)

해외아웃리치를 위한 기도회

일시: 7월 31일(수)~8월 6일(화) 오후 8시
장소: 교육실4(별관 2층)
(7월 31일(수), 8월 2일(금): 예배 참여
8월 4일(주일): 오후 2시)

주중 전도 방학

화요전도: 7월 30일(화)~8월 20일(화)
수요샘병원전도: 7월 31일(수)~8월 21일(수)
수요직장인전도: 7월 31일(수)~8월 28일(수)

교회학교 여름 말씀사경회

날짜: 8월 18일(주일)~20일(화),
시간: 주일 오후 2:30~6:30, 월화 오후 7:30~9:30
장소: 미취학부(유아·유치)~유아부실(세빛빌딩 2층)
취학부(유년·초등·소년)~중등부실(열린빌딩 1층)
사랑부-사랑부실(별관 1층)
주제: 최고의 코치 예수님!
강사:
취학부-최규명 목사(원주중정교회, 어린이전도협회)
미취학부·사랑부-담당 교역자

성찬식

25일(주일) 1~4부 예배는 성찬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역자가족수련회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교역자가족수련회가 있습니다.

* 본 교회 교인은 목회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교회 밖 성경 공부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간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물건 강매, 다단계 사업, 기획 부동산, 투자 권유, 보증 요구, 각종 청탁을 금지 합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회 정관 8조 1항 참조)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 8:1)

격포중앙교회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어르신들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가게 되어 많이 서운했으나 이것부터가 순종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성경의 본문이 사도행전이라 큐티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니 이걸로 충분하다고 여겼으나 복음과 관련한 로마서 말씀을 읽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라는 전도사님의 권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은혜로, 때론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 릴레이 금식기도자 명단이 매일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올라왔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모임과 예배 시에 부를 찬양을 계속 들으며 가사를 음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서는 작년에 뵈었던 어르신 중 세 분이 돌아가셨다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말씀하셨고 아내분의 출산이 임박했으나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신 한의사 집사님이 계셔서 작년에 이어 침술을 배푸실 때 복음 제시를 확실히 하고 영접기도까지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료팀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준비하느라 의료팀 단독방은 늦은 시간까지 분주했고 관절이 안 좋은 저는 너무 많이 오셔서 식사도 못 하고 어르신들이 낙상하면 안 되니 부축을 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복음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감당할 만큼만 보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의료팀 사역을 위한 이동식 침대를 비롯한 물품들로 버스 짐칸이 모자라도록 많은 준비를 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상자들을 만날 준비를 했으나 날씨가 너무 좋아 많은 분이 일하러 나가셔서 집도 비고 침을 맞으러 오는 분들의 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감당할 만큼만 보내달라는 기도를 해서 적게 오신 건가 생각도 했지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분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날 오셔서 복음을 들으셨던 분들이 다음날에도 오셔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다른 전도 대원과 연합하며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죽음에 관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잔치와 예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한의사 집사님은 작년에 오셨던 분들을 기억하며 반갑게 몸의 상태를 물으시고 침술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시며 아픈 부분을 마사지하며 정성껏 치료하셨고 침을 빼는 집사님이 한 번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수술을 2번 했으나 편마비 상태인 여사분이 오셨는데 침을 50군데에 꽂으니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어떻게 말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사랑과 관련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이해하겠는데 안 믿어진다며 손주들이 와서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셔서 내일 꼭 다시 오시라고 보내드렸는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나 여전히 내가 하려는 면이 강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은 침을 놓는 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니 환자분의 마음이 느껴져 그 마음과 연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영접기도는 거부했지만, 진심으로 기도해드리니 그분도 눈물을 보이시며 어떻게 신세를 갚겠느냐고 하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된다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잔치와 예배에 오기로 약속하셨던 분들과 군인분들이 오셔서 함께 복음을 들었고 찍은 사진 액자를 가지고 다음 날 집으로 방문하면서 침을 맞을 때는 듣지 못했던 개인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한 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생활을 잘하시도록, 믿어지지 않는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한마음으로 함께했던 지체들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



원미영 장년1교구
okdream61@naver.com



성산교회

함께하는 힘



박보미 장년1교구
spring0670@gmail.com



저에게 아웃리치는 구역장님, 권사님, 신앙이 오래 되신 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러 가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소망은 단지 가까운 가족들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웃리치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는 저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주변에서 교회에 가고 하면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오랜 시간이 흘러 형님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웃리치에 가시는 분들이 음식도 준비하시고 물품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던 때에 구역장님께서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어때요?”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일일까 생각해 보고 기도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줄 것 같아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답장을 드렸습니다.

구역장님의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럼 셋째는 남편에게 맡기고 첫째, 둘째만 데리고 가면 되겠다고 결정하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 남편의 출장이 잡히고 1박 2일로는 버스가 없다는 얘기를 들곤 ‘아, 내 힘으로 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신을 차려 보니 저는 부안 성산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고 마을 전도를 다녀와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소감의 내용은 이번 아웃리치에 제가 처음 오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구역장님 부부와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보며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도 할머니 두 분은 이름도 비슷하고 성산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시는 모습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집회 때 오셔서도 감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구나 느끼게 되어 몽클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배움이 저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과 열린 마음을 만나게 되어 보람찼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느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웃리치 전도가 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소중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 소망을 가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남은교회

쉽게 포기하지 말 것

열린교회에 등록한 후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이 이번 아웃리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웃리치가 어떤 활동인지 잘 몰라서 농촌 봉사활동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신청했습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생각은 ‘나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전도를 해도 되는 걸까?’였습니다. 아웃리치 전에 전도 실습을 할 때도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전 전도에 자신이 없었기에 이론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전도지와 책자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할 때는 혼자서는 마을 어르신들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전도지 초반 내용에서 맴돌다 성주 참외만 배불리 얻어먹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전도 중 전도사님과 함께 경로당에서 윗놀이를 하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있는 자리여서 우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고, 윗놀이에 쏠린 관심을 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셔서 초대가 부담스럽다며 듣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이 초청잔치에 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로당 전도에 합류한 집사님께서 4:4 윗놀이를 제안하셨고, 저희가 이기면 초청잔치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고, 저희가 윗놀이

신황중앙교회

복음의 빛

 하나님께서 아웃리치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먼저 믿음 받은 자들로서, 찬송가 가사같이 주의 진리 모르는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고,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임을 내면에 보다 분명히 하라는 말씀의 빛을 먼저 비취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 이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사명을 받은 목회자께서 그 소임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받지 않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의 분들이 여전히 고되게 일하며 그들의 굶어진 허리가 말하듯이 오로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없고 어두움에 있으며 생명이 없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때를 따라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돌이키시며 회개케 하시며 부르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도 분명히 행사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복음을 듣고 비록 읽지 못하며 잘 듣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사람은 듣고 깨어날 자들은 깨어나며 살아날 자는 살아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든든 아니든든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고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사용하시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여생이 그들보다 많이 남아보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보다도 복음과 말씀에 대해 더욱 갈급함이 없는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는 땅 아래까지 굽은 등을 가진 이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오직 말씀과 복음 아래 하나 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고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별 유익도 없어보이고 서로 공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모두 한 언약공동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 아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셨으며 말씀은 흥왕할 것이며 모든 것 위에 있고, 인생들의 자락을 무색케하며 변하지 아니하시며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들 되는 복을 내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

강민우 장년6교구
nasooogo@naver.com



용산교회

아웃리치에서 영혼이 충전되다

한윤택 장년3교구
corean_hyt@hotmail.com



 예수님을 믿게 된 지 2년이 약간 모자라는 2024년 5월, 작년에 아웃리치를 다녀온 구역원들의 은혜로운 후기와 전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첫 아웃리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러나 올해 들어 회사에서는 다른 해보다 역할과 업무가 많았고, 그 외 아웃리치 참여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기도 후 생각이 선명해졌고 가족들도 참여를 응원해 주어서 후기를 쓰는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첫 아웃리치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예비모임에서는 조 편성, 나눔, 사전 준비와 전도 교육을 받고 점차 윤곽을 잡아갔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의 그 어떤 여행과도 구분되는 모습이 보였다. 청장년 모두가 아웃리치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세상적인 그 어떤 이득 없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은혜가 대단함을 느꼈다. 말하지 못한 나의 개인 기도 제목은 “다만 조장으로서 우리 성도와 지역 주민에게 해가 가는 언행과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였다.

첫날 도착하여 오감으로 느낀 용산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어린 시절 다녀온 그림 같던 스위스 그 이상이었고, 하나님 창조의 위대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짐을 풀고 기도 후 전도를 떠났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했던 주민들을 마주했을 때 이미 알고 지낸 지인처럼 반가웠다. 전도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들을 향한 준비된 기도라는, 같은 조 권사님의 말씀이 옳았다. 예수님을 모르는 주민분들의 삶에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다. 우리가 문턱까지 인도해도 결국 그분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느끼며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소홀했던 나 자신이 부족했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한편 그들의 닫힌 마음에 과거의 불신자였던 내가 거울처럼 보였고, 성령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뒤늦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것에 은혜가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은 이튿날 전도와 초청잔치에서 일어났다. 이튿째 오후까지도 뵈지 못한 분들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만나 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

회를 허락해주신 것이 하나였고, 마음이 닫혀 포기하고 있던 할머니를 결국 초청잔치까지 초대하여 기도할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멘’을 보았던 것이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입 밖에 내던 그 단어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진 것은 한없는 은혜였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허락해 달라고 가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한 것이 유효했던 것 같으며 기뻐했던 자매님. 1년 동안 때가 되면 용산리 어르신께 연락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눴지만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 모두가 아쉬워했던 작년의 전임 조장님. 아웃리치 한참 전부터 복음을 전할 어르신들의 성함과 사정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직접 만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권사님과 집사님. 어르신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썩뜸과 마사지를 준비해오신 집사님과 자매님. 아웃리치 시작과 끝에 복받쳐 눈물로 기도하셨던 청장년 팀장님들과 전도사님. 눈물의 주일 설교와 사역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용산교회의 한상구 목사님.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었으나 결혼 후 남편 때문에 몇 십 년을 예수님과 멀어져 살다가 잔치에 고운 모습으로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손 하트를 날리며 아이처럼 기뻐하셨던 할머니.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신 우리 전도대원과 주민분들.

3일 동안 한 번도 힘에 부친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은 계속 충전되고 있던 것 같았다. 교회의 아름다운 풍광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지체들이 같이 찬양하고 새벽기도하며 함께 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위대한 주방팀을 통해 맛있는 양식을 주셨고, 우리 전도 조원을 통해 닫힌 주민들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셨으며, 연륜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청년부 지체들을 통해 교회의 미래와 겸손함을, 용산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보여주셨다. 부스러기 은혜를 갈구하는 나에게 첫 아웃리치에서 이런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서영 청년부
ronie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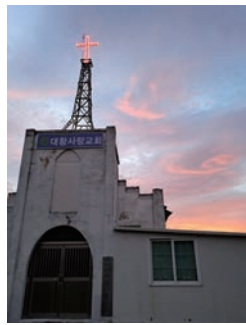
에서 이겨 다섯 분을 더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말로 다음 날 예쁜 옷을 입고 잔치에 와 주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전도에 대해 한 가지를 깊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웃리치 책자에 있던 “쉽게 포기하지 말 것”이라는 전도 강령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나서면서도 그 문구를 읽었지만 쉽게 포기하려 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의심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귀한 뉘우침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옆에서 깊은 전도를 알려주신 양승희 전도사님, 함께 전도에 나서 주신 집사님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년분들께서 저희 청년들을 예뻐해 주시고 큰 사랑을 주셔서 첫 아웃리치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즐겁게 초청잔치 연극과 교회 단장을 준비한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부족한 제가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이번 아웃리치는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



대항사랑교회

세 번의 사역을 마치며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대항 사랑교회의 국내아웃리치 사역은 2019년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발발한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 3차례 진행되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하

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계속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1977년에 준공된 대항사랑교회는 많은 굴곡의 역사를 겪은 지역 교회이다. 답사 가기 전에 전해 들었던 교회의 사정은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래서 사전 답사로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너무 큰 걱정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나오질 않았다. 지면으로 세세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들로 곤란 가운데 처한 교회로 인한 부담감은 내 마음을 짓눌렀고 지금까지 섬겼던 어느 아웃리치 사역보다도 힘든 사역이 되겠다는 걱정과 우려가 밀려왔다. 그러기에 2019년 첫 아웃리치 사역에 참여한 팀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긴장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였고, 감사하게도 초청잔치에 100여 명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목사님은 이 사역의 효과(?)에 대해 놀라워하셨다.

역둔교회

어머니, 죽으면 천국이 있어요



강원도의 높고 푸른 대자연이 우리를 맞이했다.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짐을 풀었다. 점심식을 마친 뒤 곧바로 1차 전도하러 떠났다. 첫날, 역둔리를 담당하는 우리 팀은 총 여섯이었다. 나는 마을 위에서 아래로 전도하는 팀에 속했다.

“작년에 왔는데 기억하시네요. 보고 싶어서 또 왔어요.” 아웃리치를 작년과 같은 곳에 오다 보니 전도대상자 첫 대면이 어렵지 않았다. 다가가는 문턱이 낮았다. 작년에 왔던 지체들이 또 왔기 때문에 전도대상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전도대상자 분들도 청년들을 기억하기도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맞이해주고 음료수를 내어주며 대화를 나누었다. 주로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물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러다 죽음이나, 고통, 외로움 등 주제가 드러나면 그림 전도지를 꺼내어 구원에 대한 주제로 이어나갔다. 어르신들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딱히 관심이 없어보였다. 우리는 이동할 때는 초청잔치를 홍보하며 인사드렸다. 꼭 오시라고 당부했다.

둘째 날, 새벽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다.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났다. 전도대상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졌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3차 복음전도를 나갔다. 어제 전도할 때 마을 장 옆에서 서포트만 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마을장의 도움으로 그림전도지를 직접 전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림전도지가 제일 수월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글을 읽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셨다. 점심식사 후, 4차 복음전도를 나갔다. 이번에도 그림전도지로 말씀을 전했다. 비록 영접한 사람들은 없었지만, 함께

코로나 이후 2023년에 두 번째 국내 아웃리치 사역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니 목사님은 정말 반가운 목소리로 반겨주시고, 답사를 가서 만나 뵈었을 때는 두 번째 사역을 많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였다. 목사님은 교회 건물이 가진 어려움(화장실이 노후되어 폐쇄됨)을 조심스럽게 상의하시며 팀원들이 겪을 불편함을 걱정하셨다. 늘 그렇듯이 새롭게 편성된 아웃리치 팀원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내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맛있는 식사로 초청잔치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공급해주셔서) 화장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사역을 마치면서 그 영혼들과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역을 끝내고 팀원들과 단독방을 유지하면서 매주 토요일 기도제목을 나누고 대항사랑교회와 목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하였고, 이 기도는 세 번째 사역을 위한 팀이 결성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평강과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다. 훌륭한 팀원들, 특히 주일학교의 용감한 팀원(김주원, 김주아, 임재원, 정찬도, 이가빈)은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원칙에 따라 다르게 전도대원으로 편성되어서도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훌륭한 음식 준비로 섬겨 주신 주방팀의 노고와 젊음



정다운 청년부
ekdgks@hanmail.net



의 패기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청년팀원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였다. 초청잔치는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권경철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 선포 시간에 숨죽이고 집중하는 영혼들을 보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사역 마침 감사예배가 끝나고 팀원들이 정리한 전도보고서를 전달하자 고정규 목사님은 감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2024 대항사랑팀은 다시 매주 토요일 기도하기로 했다. 이 세 번의 사역이,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임을 믿고 올해 연말까지 기도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기에.. 마침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아멘!

(이 글을 작성한 후 대항사랑교회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교회의 십자가와 간판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

기도할 수 있어서 기뻐다. 작년에는 완강히 거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뻐다.

초청잔치, 사탄이 방해하는 걸 느꼈다. 초청잔치에 오시기로 한 분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 못 오게 되거나, 일이 생기거나, 아프시거나 하는 일이 생겼다. 역둔리는 겨우 두 분이 참석했다. 작년에도 오셨던 어르신과 그분의 율케가 오셨다. 율케분은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였다. 그분들께 갈비탕과 도시락을 대접해 드리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어드렸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맨 처음 분위기를 띄우는 ‘치매 예방 손 운동’은 단연 인기 최고였다. 모든 어르신들이 열심히 따라하시며 즐거워하셨다. 그 다음 순서인 위식과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곧바로 인형극을 했다. ‘탕자 이야기’였다. 몰입도가 좋았다. 앞줄과 뒷줄에서 훌쩍거리며 우시는 어르신들도 계셨다. 나는 뒷줄에 계신 어르신께 휴지를 챙겨드리며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형극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고 있다고 선포하셨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하셨다는 내용을 전했다. 난 설교를 들으며 어르신들을 바라보았다. 믿지 않는 분의 강박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랐다. 특송 순서였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곡의 가사가 무대 앞 스크린에 떴다.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계셨다.

초청잔치를 마치고, 마을분들을 집까지 픽업해 드렸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이 풀

리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전도보고회를 마치고 나서야 모두들 잠에 들 수 있었다.

마지막 날, 5차 복음전도. 팀원이 다 같이 걸어서 역둔리에 있는 가정에 방문하였다. 날이 맑고, 해가 뜨거웠다. 역둔리는 해발 730미터나 되는 고지대였다. 전도하러 다니다 마을 중턱쯤에서 팀원 모두가 목이 마르고 더워서 지쳤다. 우리는 바로 위에 사시는 집으로 향했다. 역둔교회 성도님이 사시는 곳이었다. 두 달 전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누워 계셨다. 성도님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으셨으나, 다소 빈약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다. 지체의 설득으로 어르신은 몸이 다 나으면 바로 교회에 나가시기로 하셨다. 할렐루야!

가장 꼭대기에 사시는 어르신을 만나러 갔다. 작년에도, 올해도 초청잔치에 오셨던 그 분. 그 분은 우리가 가면 반가워하시며 바로 차를 내어주신다. 우리가 차를 안 마시려고 하면 서운해하신다. 우리와 대화도 많이 하셨다. 그러나 그 분은 마지막으로 인사 온 우리에게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하셨다. “죽으면 그냥 부모님 계신 데 가고 싶다.” 그러자 자매들이 양쪽에서 간절하게 매달렸다. “어머니, 죽으면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못 가면 어떡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우리가 코앞에 있지만 절대 열지 않는 마음의 문. 꿈쩍도 하지 않는 문의 두께를 체감했다. 결국 다른 지체의 기도로 복음 전도가 마무리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다. 이박 삼일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복음을 전도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나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지,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다! ☆

학부모세미나 후기

우리 아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었지

최성호 장년1교구
bravehear@naver.com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 좋은 아빠가 될거야.” “유치부 교사도 열심히 했으니 내 아이는 성경적으로 키울 수 있을거야.”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자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교만함을 품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려고 노력하고, 바쁜 와중에도 나름 최선을 다해 놀아주는 아빠였기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이와 함께 첫 영아부 회심집회를 참여했을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어찌 보면 약간 원론적일 수밖에 없는, 간절하였지만 막연한 마음을 가졌었다면 이번 세미나는 실제로 아이에게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배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진짜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나 아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는 것도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많이 하

대산교회

진심을 이끌어낸 진심

요셉 형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판단이 삶을 살며 쌓아온 경험에 의해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인상이 친근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인상이나 느낀 점이 다가가기 어렵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누구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복음에 관한 확신은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믿는 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나 지어낼 수 있고 기존의 내용 위에 색을 덧입혀 진실인 척하는 거짓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내게 확신이 없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 전도대원들의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을 보고 저도 좀 더 진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약했던 저의 진심을 이끌어 낸 건 다름 아닌 전도대원들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팀분들의 전도 활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언급할 수 없지만 제가 자주 밝은 저의 팀분들은 항상 진심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

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 즈음, 겨우 몇 단어만 말하는 아이를 데리고 가정예배를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흡수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저 스스로에게)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 하나님과 아이 앞에 쓰는 반성문이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이를 키워 나갈 때 하나의 선명한 지표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 돋보일 만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처세술보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제 삶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리고 저희 가정의 삶에 동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안에서 필터링되도록 스스로 더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딸아이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딸이 나중에 커서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의미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시간에 아버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었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파고드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길 소망합니다. ☆

주주의 청년부
cji020212@naver.com



나는 알겠습니다. 미약할지 몰라도 자신의 행동에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동요할 수 있다는 것들요. 저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신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고 그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와 열정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랍니다. ☆

곰곰이 생각

세상이 잘 보이는 안경을 찾는 방법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어쩌다 보니 저의 실외용 안경, 돋보기안경 그리고 아내의 안경까지 안경테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중에 제게 맞는 안경을 끼고 문 밖을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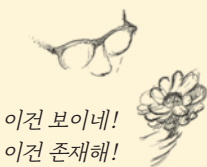
제가 어느 안경을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써보면 압니다!

내가 보아야 할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안경, 그 안경을 쓰고 나가면 됩니다.



당신과 저는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요?
- 역시 써보면 압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주의, 증명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는 허무주의 등등. 이런 안경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꼭 제 돋보기안경처럼 시각이 너무 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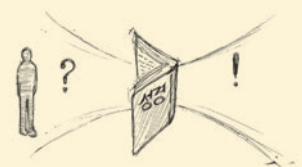


이건 보이네!
이건 존재해!



희미하니
알 수 없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왜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지, 왜 당신과 제가 이토록 추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세상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에 맞는 안경처럼 말이죠.

세상이 잘 보이시나요?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절

2024 온가족 여름말씀사경회

회복 -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렘 30:17)

날짜 8월 18일(주일)~20일(화)

시간 18일 오후 4시/19~20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본관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특강

청교도 가정관
(원종천 교수, 19일(오전10시))

교회, 하나님의 가족
(이정규 목사, 20일(오전10시))

* 교회학교 사경회와 함께 진행됩니다(3면 또는 홈페이지 참조)



삶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준 열린교회

최윤성 장년5교구
kevinbrownie@naver.com



저는 12살에 교회에 다니게 된 이후 중·고교 시절에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던 중, 고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각자 진학하게 되어 3년간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친구의 인도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친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다시금 교회에 가는 것을 권유하였고, 가정사로 힘들었던 저는 운명처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기였지만 교회 공동체는 저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며 사랑해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온 저의 20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불행했던 저의 인생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해 계속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회심에 대하여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저를 위한 사건이라고 깊이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은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세심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경륜 안에서 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당시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14년 여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앞서 저를 교회로 이끌었던 친구가 다시 한번 저에게 열린교회로 올 것을 권유하였고 저는 열린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마음을 녹이셨고 매번 교회에 출석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주셔서 힘든 시절의 삶의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었던 때 아내의 태증에는 지금은 훌쩍 자란 큰아이가 있었고 만삭의 아내를 돌보고 시험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시간만큼 순수하고 깊이 그리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독서실의 작은 골방에서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던 저에게 부으신 은혜, 틈틈이 읽었던 신앙 서적 가운데 깨달았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어울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인도하셨던 시간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향으로 온전하게 달려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려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압도적인 공부량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시간을 나누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격려를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구역 지체들이 매주 기도해주며 나눠주었던 사랑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 은혜는 열린교회에 와서 신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열린교회는 인간의 삶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자가 된다고 해서 삶의 고난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자에게도 삶의 고난이 있다. 하지만 신자의 고난은 다르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를 더욱 단련하고 이를 통해 신자는 나를 빔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제 인생의 고난의 때를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간명한 메시지는 지금도 저를 붙들어주는 삶의 이정표입니다. 행복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부르신 그 뜻대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며 매일매일 성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을 향한 길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소중한 아이들의 아버지로 부르신 삶, 아울러 현재는 어린이들의 교사로 부르신 삶을 잘 살아내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린교회는 한 사람의 신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삶의 자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었고 인간으로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르신 자리에서 서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내적 고민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처럼 탁월한 설명을 주었던 곳은 없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계속하여 되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열린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의 가장 연약했던 시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열린교회 내에서도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어 감으로써 제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나날을 살아가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안에 오시는 모든 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깊이 믿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휴직장로	김남근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이찬 이순이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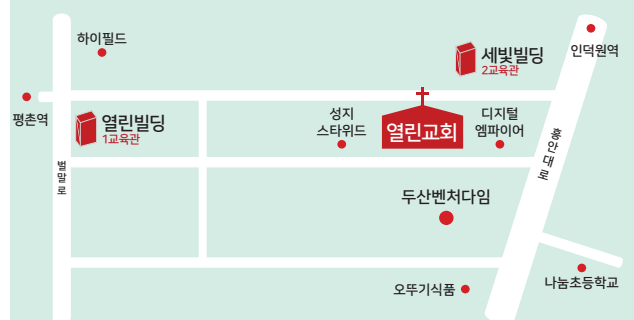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황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성경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